

속속 드러나는 ‘그날’의 진실...온전한 진상규명 서둘러야

5·18 39주년 결산

(상)새롭게 드러난 사실들

‘바로 잡지 못한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처럼 39년이 지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 주관 기념식에서 유가족들이 흘린 눈물이 이를 증명한다. 전두환과 추종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1980년 5월이 온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계엄군 발포 명령자, 행방불명자, 군 편의대 등 당시 전두환과 연관된 중요한 단서가 세상 밖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조만간 5·18의 그 실체적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조금씩 밝혀지는 그 날의 진실=광주민주항쟁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군 비밀요원들에 의한 5·18관련 증언이 39년

만에 최초로 이어졌다.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집단 사격을 하달한 발포 명령자다.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는 “전두환이 계엄군의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이날 “전두환이 1980년 5월20일 K57(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대장 등과 회의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만원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 등이 제기하는 북한군 침투설은 광주시민을 폭도로 만들기 위해 사복군인들을

전두환 5월21일 ‘사살명령’ 39년만에 최초 증언 충격

“폭동의 도시로 만들라” 사복군인 ‘편의대’ 투입 확인

행방불명자 문제·헬기사격 등 軍 기록물 잇따라 발견

침투시켰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일명 ‘편의대’라 불리며 시민 행세를 했던 사복군인들이 존재했다”며 “5월20일 ‘성남에서 C-130 수송기를 타고 온 약 30~40명이 K57 광주비행장 격납고 안에 주둔하면서 민간인 버스를 타고 광주 시내로 침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직접 격납고로 찾아가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잇따른 증언에 기록물도 잇따라 발견=증언 뿐만이 아니다. 5·18 당시 사라진 ‘시신’이 비밀리에 김해로 옮겨졌다는 군 기록이 발견됐다. 행방자로 남은 희생자일 가능성이 크다.

육군본부가 지난 1981년 6월에 작성한 ‘소요진압과 그 교훈’이라는 제목의 군 3급 비밀문건에는 공군 수송기 지원 현황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5월25일 ‘김해-광주’를 운항한 수송기 기록 옆에 ‘시체(屍體)’라고 적힌 한자가 적혀있다. 김해에서 의약품과 수리부속품을 싣고 광주로 왔던 수송기가 돌아가면서 시체를 운송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5·18 당시 헬기사격에 의한 사망자를 분류한 국방부 공식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민 47명이 기관총에 맞아 숨졌다는 내용이다.

김희송 5·18연구소 교수가 최근 공개한 자료인 국방부가 1985년 작성한 ‘광주 사태의 실상’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5월 총상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 현황을 LMG기관총 47명, M16 29명, 칼빈 37명, M1 8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온 군의 입장과 상충된 기록이다.

특히 LMG의 탄환 구경은 5·18 당시 헬기에 장착된 M134미니건과 M60 기관총과 일치하고 총상 형태도 비슷하다. 즉, LMG기관총에 의한 사망자 47명은 헬기사격 피격 사망자로 추정할 수 있다.

이밖에 5·18 최후 유혈진압 작전인 ‘총정 작전’을 보고받은 전두환이 ‘굿 아이디어’라고 칭찬했다는 내용의 문건도 나왔다.

◇美 정부 기밀문서 공개해야=5·18 진실을 규명할 증언과 기록물이 속속 드러나면서 진상규명에 필요한 미국 측 기밀문서 공개를 정부가 앞장서서 요청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7년 팀 셔록 미국 기자가 광주 시와 5·18기록관 등에 기증한 3천530쪽 분량 문서는 그동안 왜곡했던 역사를 한순간에 뒤바꿨다. 이에 따라 5·18역사를 왜곡한 북한군 개입설 등이 앞서 공개된 미국 문건들에 의해 명백히 허위로 드러났던 만큼 추가적인 자료를 조속히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광주에 방문한 바른미래당 김동철 국회의원도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가 미국 측 기밀자료를 넘겨받기 위해 한 노력은 전혀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5·18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신경 쓴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16개 부처가 가지고 있는 5·18 관련 기록이 공개된다면, 진상규명을 놓고서 여야가 필요가 없고, 편협하는 세력 준동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환준기자

세계수영대회 기간 인천공항-송정역 KTX 운행

국무조정회의서 최종 확정...인천-용산 구간 신설 상·하행 7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인천공항에서 광주송정역을 오가는 KTX 임시편이 운행된다.

23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열고 KTX 임시편(인천공항-송정역)을 7편(인천공항→송정역 4편·송정역→인천공항 3편) 편성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광주수영

대회 참가 선수단 수송에 승통이 트이게 됐다.

인천공항-광주송정역 간 KTX 임시편을 편성하려면 연결편인 인천-용산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 이 때문에 노선이 겹치는 공항철도 측의 운행 횟수 감축이 불가피해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노선 신설에 따른 KTX 증편과 신호체계 정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 공항철도 노선 감축으로 인한 손실분 등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도 이견이 계속 됐다.

하지만 이날 조정회의에서 KTX 증편에 들어가는 예산 5억원을 코레일이 수영대회 후일 형식으로 부담하고 공항철도 측도 한발 양보하면서 인천공항-송정역 KTX 운행이 최종 확정됐다.

인천공항에서 송정역을 오가는 KTX는 선수단 입국이 시작되는 7월 초부터 운행될 예정이다.

수영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코레일과 공항철도 측이 수영대회 성공을 위해 크게 양보하면서 KTX 임시편 편성이 이뤄지게 됐다”며 “이로써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선수단의 광주 이송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김대이기자

광주세계수영대회 기념주화 ‘인기몰이’

예약접수 최대 발행량 초과...추첨 통해 구매자 결정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되는 기념주화의 예약 접수가 최대 발행량을 초과해 추첨으로 구매자를 결정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광주수영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하는 기념주화의 구매 예약 접수자가 발행량인 1만장을 넘어섰다.

기념주화는 지난 5월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예약 접수를 받았으며, 접수자가 발행량인 1만장을 넘어서 6월4일 컴퓨터 프로그램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추첨은 한국은행, 조폐공사, 경찰 등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6월7일이다.

당첨된 예약 구매자는 7월11일 접수한 지정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배송으로 주화를 배부 받게 된다.

한편, 수영대회 기념주화는 앞면에 수영(점영)선수가 평화의 물결을 가르며 미래의 꿈을 향해 힘차게 도전하는 모습, 14일간 예약 접수를 받았으며, 접수자가 발행량인 1만장을 넘어서 6월4일 컴퓨터 프로그램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시,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

광주시는 23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중제 행정부시장 주재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시와 공공기관이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16개 출연기관, 3개 사단법인 등 23개 공공기관에서 참여했다.

회의에서 각 공공기관은 현안업무를 보고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비롯해 수영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불 조성,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문화 정착,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한 시민 신뢰 회복 등을 주문하고 협조를 구했다.

/최권범기자

금지사, 화순 모산마을서 심야 소통행보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2일 화순 도곡면 모산마을을 방문해 60여명의 마을 주민, 원예·특작 농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는 민박간담회를 했다.

민박간담회에는 구충곤 화순군수, 문행주 도의원, 강순팔 군의회 의장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모산마을 화관에서 20여명의 주민과 대화를 하고 인근 도곡누리관(면 복지회관)으로 장소를 옮겨 30여명의 원예 특작 생산 농업인과 밤 10시를

넘기는 늦은 시간까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토론했다.

김 지사는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지원 건의에 대해 “한옥이 많은 소위 고인돌 마을의 특성을 살려 마을 회관 외관을 한옥 기와로 바꾸고 내부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사업비를 흔쾌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주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김 지사 일행은 도곡누리관으로 자리를 옮겨 파프리카, 복숭아, 딸기, 토마토 등을 생산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

품하는 원예·특작 농업인 등 3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 농가들은 이 자리에서 품목별 영농 경험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털어냈다.

김 지사는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공 확대 방안 ▲로컬푸드 지원 확대 ▲시·군 집콕가공센터 지원 등을 요청한 것에 대해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해 다양한 농산물이 로컬푸드에 납품되도록 하면 좋겠다”며 “로컬푸드 및 집콕가공센터에도 예산 지원을 검토하는 등 건의 내용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했다.

/김재정기자

2019 전국 빛고을 사진대전 [디지털]

Bitgoeul Photo Exhibition 2019



2018년 일반 대상 - 양동훈



2018년 학생부 대상 - 김아현



2018 전국 빛고을 사진대전 시상식

공모분야

출품자격 일반부문(제한없음), 학생부문(중·고 재학생)

접수기간 5월 20일(월) ~ 6월 30일(일) 까지

출 품 료 없음

작품주제 광주시를 대표하는 다섯가지 매력 ‘오매 못지네’, ‘오매 못있네’, ‘오매 졸겁네’, ‘오매 편하네’, ‘오매 반갑네’ _ ‘오매광주’를 잘 표현한 작품.

작품규격 FILE(스마트폰,디카) -크기:10MB/개 이하

접수방법 ce21.kr(pc) / m.ce21.kr(모바일) 1인당3점 이내

심사발표 7월 9일(화) 전국빛고을사진대전(ce21.kr)

시상일시 7월중

시상내역

일반공모 대상(1점)100만원, 최우수상(1점)50만원, 우수상(1점)30만원, 장려상(10점)100만원.

학생공모 대상(1점)50만원, 최우수상(1점)30만원, 우수상(1점)10만원, 장려상(6점)30만원.

유의사항

- 타 공모전 입 · 수상 작품과 표절이 인정되는 작품은 결격사유.
- 디지털합성 및 수정은 심사에서 제외됨.
- 입선작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하여 도서출판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음.
- 수상작 관련한 초상권분쟁은 출품자가 책임져야함.
- 제출한 파일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주최 | C21 (Culture Economy21)

| 주관 | C21 사진운영위원회

| 후원 | 광주광역시 | 광주매일신문

| 문의 | C21 사무국 062.650.2074

